

#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 강화

### 전북교육청, 2021 진로교육 기본계획 마련... 진로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 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하기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초·중등 진로교육 기본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2015 개정교육과정 실시, 대입제도에 있어 진로교육의 중요성 확대 등을 반영했다.

또한 삶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교육과정 속 배움을 확장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몰입 경험을 위한 교과연계 진로활동 강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인식 및 탐색활동 지원 ▲진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인식 및 탐색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대학생 멘토 초청 학과별 진로멘토링,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계획-실행-평가-기록'하는 진로체험활동인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는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482개 학급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60개교에는 졸업생(선배)이나 전문가로부터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연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진로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 중3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 농어촌 ICT지원 임직원상 진로멘토링, 진로체험 버스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계속된다. 진로 전담교사 및 진로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교사, 학교장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연수를 진행해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군장대 평생교육체제 지원 성과공유 워크숍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일 군장대와 함께 수퍼스타칼리지 세미나실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와 군장대는 2019년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전라북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및 성인학습지원센터, 군장대 휴먼융합학부 및 성인학습지원센터 간 2차년도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발전 방향과 신입생 모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일 군장대와 함께 수퍼스타칼리지 세미나실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대는 성인학습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 하루만 대면 출석하면 된다. 또, 개인(팀) 프로젝트 수업(Project-Based Learning)과 서비스 러닝 교육방식을 적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의 직업 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증을 통해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동승 학장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전주대 미래융합대학과 평생교육원, 지역 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전주대-군장대 간 협업을 통해 평생학습 거점 대학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미래융합대학에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LINC+사업단,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창업캠프 개최

### 전북지역 대학생 연합캠프... 창업문화 확산 기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전북권 대학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원광대를 비롯해 전북지역 9개 대학과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가 함께 했으며, 전북권 대학의 창업문화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교내·외 재학생에게 에너지를 부여하고, 지역 청년들 상호 간에 창업역량 탐색 및 교류 취지로 마련됐다.

캠프 주제는 '뚝!뚝!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로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스텔스 창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모티콘 크리



에이터에 대한 기획부터 제작, 실제 이모티콘 플랫폼 제안까지 전 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명씩 총 10개 팀을 구성해 팀별 멘토로 '이모티콘으로 돈벌기' 저자이자 '저승사자'의 김영삼 작가를 비롯해 '광복이네 이모티콘' 시리즈 이광욱 작가, '대충하는 답장'의 김규진 작가 등 현업 이모티콘 작가들이 함께해 수준 높은 멘토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6일간의 캠프기간에 비대면 플랫폼과 오프라인 실습을 오가며 멘토와 함께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 40여 개의 명품이 있는 이모티콘을 완성해 국내 이모티콘 플랫폼에 제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캠프를 주관한 LINC+사업단장 송문규 교수는 "앞으로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북권 9개 대학과 긴밀하게 협업해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역량 탐색 기회를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전북 청년들이 창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JB 랜선마켓' 성료

### 전북대 창업지원단, 온라인으로 증기 제품 판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1월 8일에 이어 2월 2일 'JB 랜선마켓'을 진행, 총 20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적인 쇼호스트가 사전에 제작된 기업의 상세 페이지를 통해 라이브로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들의 구매 유도를 위해 실제 사용방법 설명과 시식 등을 통해 1,600명이 동시 접속했고, 2시간의 방송 시간 동안 2천여 만 원의 매출도 발생했다.

특히 방송 종료 후에도 각 기업 제품 연계 쇼핑몰의 트래픽 유입률이 약 10% 상승했고, SNS 홍보 게시물 역시 1만천 회 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랜선마켓으로 인한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랜선마켓에 참여한 (주)세이프스펙 전주혁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 매우 어



려운 상황에서 대학에서 직접 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제품 홍보와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할지 방향까지 제시해 준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권대규 단장은 "JB 랜선마켓의 운영으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실천중심 환경생태교육 강화한다

### 전북교육청,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실천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감수성을 지닌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실천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을 추진한다.

먼저 학교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한다. 사제동행 동아리, 학교 생태지도 만들기, 학생회 중심의 지구 살리기 실천운동, 학급 생태공간 조성 등 학생 참여와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한다.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구살리기 실천학교(민주학교) 4개교, 재활용품 나눔공간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후 감사단, 교사

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환경생태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지구살리기를 위한 부서별 협력체제를 갖추고 환경관련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보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구살리기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만큼 교육과정 안에 지구살리기를 위한 실천내용을 담아 아이들이 지구공동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존중과 배려 속에 공존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기후위기·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